

## MLB.com “류현진은 좋은 3선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 이 류현진을 에이스가 아닌 선발투수로 분류했다.

지난 2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MLB.com 토론토 블루제이스 담당 키건 매더슨은 이날 토론토 2022년 로스터를 짰다. 선발투수에서 류현진이 언급됐는데, FA(자유 계약 선수) 로비 레이와 트레이드로 영입한 호세 베리오스에 이어 3번째로 언급됐다.



▲ 류현진 사진=mlb.com

매더슨은 “류현진은 분투했지만,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에서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인 4.37을 기록했다. 아직 2,000만 달러씩 2년 계약이 남아 있다. 건강한 류현진은 여전히 2선발 또는 매우 좋은 3선발이 될 수 있다.”며 1선발로 토론토 마운드를 이끌었던 그의 위치를 아래로 내렸다.

2019년 시즌을 끝으로 메이저리그 FA(자유 계약 선

수) 시장에 나온 류현진은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규 시즌이 60경기로 줄어들었던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 팀은 리그당 8개 팀이 됐다. 토론토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12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토론토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2021년에도 토론토는 류현진에게 같은 역할을 바랐다. 그러나 부진한 경기력이 시즌 중후반부에 나타나 평균자책점이 치솟았다. 그러는 사이 에이스 자리는 레이에게 넘어갔다. 레이의 32경기에 선발 등판해 193%이닝을 던지며 13승 7패 평균자책점 2.84, 248탈삼진을 잡으며 토론토 마운드를 이끌었다.

커리어에서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보냈던 류현진이 2022년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강인 “제 실력 부족하니까 안 뽑히는 것”

이강인(RCD마요르카)이 한국 축구대표팀에 발탁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실력 부족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이강인은 지난 2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 이강인 사진=마요르카 공식 SNS

이강인은 지난 3월 한일전 이후 파울루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월과 10월에 걸쳐 치러진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일정에도 모두 제외됐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데뷔골을 넣는 등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10월 명단 제외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였다.

벤투 감독은 당시 “이강인이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 또한 좋은 경기력을 보였

다. 몇몇 선수는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않았지만 멀티플레이어이고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강인은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해 하시는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제가 필요하시고, 제가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신다면 뽑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며 벤투 감독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강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플레이를 하는 게 목표다. 제가 아직까진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안 뽑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라리가라는 큰 리그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나중에 제가 꼭 필요하시면 뽑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고진영, 3년 연속 LPGA상금왕 ‘도전’



▲ 고진영 사진=BMW코리아

지난 24일 부산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6달 만에 다시 세계 랭킹 1위를 되찾은 고진영이 내친김에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와 박인비도 달성하지 못한 3년 연속 상금왕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이 대회 우승 상금 30만 달러를 획득하면서 올 시즌 195만6,415달러로 미국의 벨리 코다(197만4,657달러)를 바짝 따라 붙으며 2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아직 시즌 최종전이 왕중왕전 성격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우승상금 150만달러)을 포함해 2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고진영의 상금왕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고진영이 최고 상금이 거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벨리 코다와 순위 경쟁에서 이긴다면 상금왕 달성이 유력하다. 고진영이 올 시즌에도 상금왕을 차지하면 2019년(277만3,894달러) 2020년(166만7,925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박인비(2012-2013)를 뛰어 넘는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이자, LPGA투어 역사에서 로레나 오초아(2006-2008)이후 13년만의 3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2019년 4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됐던 고진영은 지금까지 총 113주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는 158주간 세계 1위를 지킨 로레나 오초아(은퇴·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세계 1위를 유지한 기록이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랭킹이 동결됐던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8주를 제외하면 고진영의 통산 세계 1위 기간은 105주가 된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